지역 소식통

고창군, 구시포 · 동호 해수욕장 7일 개장 다음달 15일까지 운영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고창군에 자리한 아름답고 청정한 구시포·동호해수욕장이 오는 7일 개장해 다음달 15일까지 40일간 운영된다.

군은 개장에 앞서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진입로와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안전관리센터 등 편익시설을 정비완료 했으며 안전을 위한 장비와 부표도 설치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안전관리 책임기관이 지자체로 변경되면서 고창군에서는 유관기관 과 관련단체와 협의회를 개최하고, 구시포·동호해수욕장에 종합상황반, 부안해양경비안전서, 고창소방서, 고창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근무와, 안전관리요원 등을 배치해 해수욕장 운영 준비를 마쳤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올 여름 휴가는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한 시설이 잘 갖춰진 구시포·동호해수욕장에서 편안한 시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 주산면, 신생아 탄생 기념 '우리아가등록증' 1호 발급

부안군 주산면은 신생아 탄생을 기념하고 부안군의 새 군민이 됨을 축하하려는 '우리아가등록증' 1호를 발급했다.

우리아가등록증은 가족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복하는 아이 출생 축하 메시지와 신상을 기재해 소중한 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말부터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시행한 제도이다.

우리아가등록증 1호 발급 신청인은 "우리 아기의 탄생을 함께 축하해준 주산면사무소 직원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주 산면 관계자는 "우리아가등록증 발급과 더불어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현금으로 신생아 기저귀를 구입해 전달하고 있다"며 "출산가족의 호응이 높다"고 강조했다.

/부안=이옥수기자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 품평회

정읍시, 12일부터 13일까지 YMCA청소년수련관서 개최

정읍의 대표적인 명품 농산물인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자리가 마련됐다.

시는 제14회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 품평회(이하 씨 없는 수박 품평회)를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정읍YMCA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회식은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씨 없는 수박 품평회는 명실상부한 정읍의 여름철 대표 축제이다. 수박명인 이석변 회장과 정읍수박연구회 회원들의 그간 노력의 결실을 엿볼 수 있는 자리다.

행사에서는 최고의 씨 없는 수박을 선발하는 수박 품평회가 열린다. 품평회에서는 당도와 식감, 무게, 모양 등을 기준으로 최고를 가릴 예정이다. 더불어 평양예술단과 지역가수 공연, 어린이 원예체험 프로그램, 세계 수박 유전자원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돼 있다.

이석변 회장은 "씨 없는 수박 품평회가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의 맛과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국 최고의 명품 수박 생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의 씨 없는 수박은 지난 2003년 처음 시험재배에 성공한 이후 현재 80농가에서 60ha에 수박을 재배하고 있다. 농가에서 생산된 수박은 산지유통센터의 비파괴당도계 검사 등의 과정을 거치며 이 과정을 통과한 고품질 수박만이 시중으로 유통된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씨 없는 수박을 대표 특화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 2014년도부터 일본으로 수출돼 현지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올해도 100톤이 수출 길에 오를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도내 1위

대상액 2429억원 중 1670억원 집행 68.7% 집행률 달성

부안군이 2017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한 결과 신속집행 대상액 2429억 원 중 1670억 원을 집행해 행정자치부 목표인 55%를 크게 웃도는 68.7%의 집행률을 달성, 2년 연속 전북 기초지 자체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09년부터 신속집행을 시작한 이래 부안군 역사상 가장 높은 집행률로 지난해 집행실적 60.8%보다 7.9%P 높은 수치이다.

이를 위해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매월 추진실적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신속집행 10대 추진지침 적극 활용 및 연초부터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현안 사업 집중 추진 등 집행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이 성과를 거뒀다.

부안군은 2017년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평가에서도 전북 기초지 자체 1위의 성적을 거뒀으며 행자부 전국 우수기관 및 전북도 대상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등 1억 1000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지역경제 활력제고 및 민생을 안정하려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한 결과 1분기에 이어 상반기에도 전북 기초지 자체 1위의 성과를 거뒀다"며 "하반기에도 계획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해 이월사업 및 불용액을 최소화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지역 다원, 녹차 만들기 체험 인파로 '북적'

정읍지역 다원들이 녹차 만들기 체험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황토현다원과 현암다원, 태산명차 등 지역 내 다수의 다원에서 녹차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에서는 찻잎 따기부터 차 만들기, 시음에 이르기까지 전통제다법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직접 만든 차는 가져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찻잎을 직접 따고 뜨거운 솥에 넣어 살청한다. 이 손으로 비비고, 다시 솥에서 건조하는 과정을 체험한다.

체험객들은 "직접 따고 만든 차를 마시면서 힐링의 시간을 갖고 있다"며 "특히 정읍 자생차는 다른 지역 차에 비해 맛이 부드럽고 다원 또한 아름다워서 다시 찾고 싶다"고 밝혔다.

기술센터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입소문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도시민들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자생차 체험은 5월부터 11월까지 5개 다원에서 진행된다.

차 만들기 외에도 다원별로 전통다도 체험과 차 음식 체험, 천연염색, 떡메 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안준식 신임 고창소방서장 취임

고창소방서는 제11대 고창소방서장으로 안준식 서장이 2017년 7월 3일자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안준식 서장은 전남 강진 출신으로 1983년 소방에 입문하여 소방행정분야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 두루 거쳐 많은 경험을 쌓았고, 군산, 남원, 정읍 소방서장을 지내면서 실제 대형 재난현장을 지휘했을 뿐 아니라, 체계적인 소방훈련을 이끌어 직원의 현장대응능력을 한층 높였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중앙소방학교 전임교관으로 행정실무, 소방관계법령 등 강의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등 소방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및 대통령 표창 등을 수상했다.

안준식 서장은 부임하여 첫 행사로 충혼탑을 참배한 뒤, 소방서 대강당에서 의용소방대장단, 직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취임식에서 "따뜻하고 책임 있는 강한 소방 실현을 위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소방 △지역안전 책임지는 책임 소방 △존경과 배려로 하나 되는 강한 소방을 복무방침으로 천명하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고창소방서가 되도록 매사에 솔선수범하겠다"고 전했다.

안 서장은 확고한 공직 관과 철저한 행정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합리적 리더십을 발휘하며, 현장업무에 정통하고 온화하며 합리적인 성품으로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서, 자체선도프로그램 '효도밥상' 실시

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최근 경찰서 및 선운사에서 고창여중 3학년 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체선도프로그램인 '효도밥상'을 실시했다.

이번 자체선도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의뢰받은 학생들을 본인 및 부모님의 동의하에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첫째날은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학생들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 후에 마트에 직접 가서 음식 재료들을 구입하고 구내식당에서 만드는 체험을 하였으며, 이어서 부모님이 참여하여 만든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마지막으로는 학생들이 직접 쓴 효도 편지를 낭독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다.

둘째날엔 선운사로 이동하여 약 2시간여동안 선운사 주차장에서부터 선운사 경내까지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줍는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앞으로도 맞춤형선도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사회 체험 및 봉사활동을 통해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을 위한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박차

내년까지 76억 투입

고창군이 저수지 제당붕괴 등 재해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고시된 흥덕면 사근제를 비롯해 성송면 내정제, 공음면 남동1제, 신림면 남세제, 고창읍 비악골제, 심원면 화산제, 성내면 신흥제 등 총 7개소의 저수지에 대해 제당 보강, 여방수로 정비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2018년까지 재해예방사업비 총 76억 원을 투입한다고 4일 전했다.

흥덕면 사근제는 올 초 착공해 올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성송면 내정제 등 6개소는 올해 실시설계 완료 및 착공해 오는 2018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우정 군수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저수지 붕괴, 유실 등의 재해위험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이고, 가뭄 등 재해에 대비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가능하게 해 농가소득 향상도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재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 불안요소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